광주 문화산업의 미래는? …ACE컨퍼런스 25일 개막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단 주관…26일까지 DJ센터

순수예술·문화관광·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동력이 될 문화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개최된다.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광주의 문화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행사가 열린다.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단장 이승권 교수) 주관으로 'ACE컨퍼런스&아카데미'를 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2014 ACE(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기간에 열리는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광주지역의 문화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주제로 순수예술진흥 방안,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25일에는 'Digital 콘텐츠의 미학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증강현실로 바라본 자연사 박물관', '공간 증강현실 기술의 적용, '3D 애니메이션'이라는 주제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강연이 펼쳐진다.

이튿날인 26일에는 고정민(창조문화연구소장·홍익대 경영대학원)교수의 '지역 자신을 이용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방안'에 이어 임학순(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교수의 '순수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방안', 이용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원의 '문화산업 핵심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날 오후에 진행되는 2부에서는 '영화로 읽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영화평론가 전찬일과 이한 감독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고, '유엔미래보고서2040'이 꼽은 '영화를 현실로 만드는 신기술'인 빅데이터와 3D프린터의 기술현황과 시장전망에 대한 특강도 열린다.

한편, 이번 ACE 컨퍼런스&아카데미는 문화콘텐츠 관련 인재를 육성을 위해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신 문화콘텐츠 관련 강연이 진행된다. 모든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기관이나 단체 참석 문의는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 홈페이지(www.chosun.ac.kr/aca/) 또는 전화(062-230-6577)로 신청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21~27일 '승용차 없는 날'…"걷기·자전거·대중교통 이용을"

오늘 '세계 차 없는 날' 맞아

27일 소태역서 무료 축제열차

승용차 없는 주간(21~27일)의 첫날인 21일 푸른광주21협의회 주최, 사)자전거사랑연합회 광주본부 주관으로 극락강 대표~승천보 구간에서 녹색 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자전거 홍보 퍼레이드 행사가 열렸다. 〈푸른광주21협의회 제공〉

광주시는 '세계 차 없는 날(22일)'을 맞아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승용차 없는 주간을 운영한다.

'세계 차 없는 날'은 지난 1997년 프랑스에서 시작, 전 세계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4일 '1일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행사'를 마련, 시청과 5개 구청의 공무원을 비롯해 각 기관 직원들이 참여해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으로 환경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또 27일에는 도시철도공사 주관으로 대중교통이용 체험 축제가 열린다. 이날 낮 12시와 낮 12시10분 두 차례에 걸쳐 소태역에서 출발하는 축제열차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열차에서는 광주교통방송(TBN)을 통해 승용차 없는 날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게임도 즐기는 라디엔티어링이 진행된다. 종점인 평동역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사생대회, 다문화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은 실천으로 이번 행사 기간만이라도 승용차 없는 생활을 체험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도의 맛과 멋' 골프로 즐긴다

26일 남도골프투어 설명회

광주시와 한국관광공사는 광주·전남지역의 골프투어 활성화와 골프 관련 산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오는 26일 한국관광공사 사옥 TIC 상영관에서 '남도골프투어 관광상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광주, 전남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국내 골프업계와 관광업계 대표, 골프 전문기자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남도골프투어 프리젠테이션, 상품홍보, 클럽소개와 함께 현장상담도 진행해 남도골프투어에 대한 업계의 관심 유발은 물론 상품의 현장판매도 가능하다.

남도골프투어 상품은 시와 전남도,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고 광주·전남지역의 17개 골프장과 여행사, 코레일 등이 공동 협력해 지난 2013년 출시된 상품으로, 남도의 맛과 관광자원을 골프와 결합한 것이다.

이 상품을 통해 지난해 골퍼 1600여 명을 유치했고, 올해도 광주권 골프장의 추가 참여와 KTX 골프 전용칸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일본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언어권별 홈페이지(누리집)과 홍보물을 제작해 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중남미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시장조사·바이어 발굴 등 지원

11월19~26일 3개국 방문

광주시가 '2014 중남미 종합무역사절단'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광주지역 수출 중소기업이며, 무역사절단은 11월19일 출발해 21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24일 칠레 산티아고, 26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영문 상품안내서(카탈로그)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참가 업체는 베네수엘라와 칠레, 브라질 현지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제품에 대한 시장성을 평가하고, 기업 수출여건 등을 감안해 시 기업육성과에서 최종 선정한다.

참가 기업에는 현지 시장성 조사 비용은 물론 바이어 발굴과 상담 주선, 통역 배치, 왕복항공료(30~70%)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국외 항공료 일부, 국내 이동료, 현지 숙식비는 참가 기업이 개별 부담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전국장애인기능경기 '선전'

23개 직종 23명 참가

은3·동4·장려상 3개 획득

■ 2014년 전국장애인 기능대회 광주 대표 입상자 현황

직종	성명	장애유형
은메달		
보석가공	정종석	지체장애
영어번역	김수연	시각장애
전자기기	최의석	청각장애
동메달		
귀금속공예	이황희	청각장애
PCB 설계	백기호	지체장애
e-스포츠	김지우	지체장애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서승균	지체장애
장려상		
제과제빵	박영상	청각장애
컴퓨터프로그래밍	윤성호	청각장애
양복	노완주	지체장애

제3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광주 대표 참가자 10명〈표〉이 보석가공, 영어번역, 전자기기 직종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선전했다.

광주시는 21일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고용노동부 주최로 충남에서 열린 전국장애인기능대회에서 23개 직종 23명의 기능 장애인이 광주대표로 참가해 은 3개, 동 4개, 장려상 3개 등 10개 분야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각 지역별 기능경기대회에서 종목별로 우승한 참가자들이 전국을 무대로 최고의 기량을 겨루는 자리로,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31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선 총 36개 종목에 382명이 참가했으며, 보석가공, 컴퓨터프로그래밍, 제과제빵 등 경기 직종별로 완성도 높은 기량과 작품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 대표 중에선 정종석(보석가공), 김수연(여·영어번역), 최의석(전자기기) 등 3명이 은메달을, 이황희(귀금속공예), 백기호(PCB설계), 김지우(e-스포츠), 서승균(CAD·전산응용기계제도) 등 4명이 동메달을, 박영상(제과제빵), 윤성호(컴퓨터프로그래밍), 노완주(양복) 등 3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명민 광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매년 광주대표들이 기능 장애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지역 장애인의 자립능력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기술력 향상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市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개방

15일전 전화신청…사용료 감면

각 체육회 가맹단체 주관 경기

시민들이 이용을 선호하는 월드컵경기장과 염주체육관 등 대규모 공공 체육시설이 개방된다.

체육시설 개방은 광주시가 민선6기 들어 시민 세금으로 건립된 체육시설을 원래 주인인 시민들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가 개방하는 체육시설은 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염주체육관, 빛고을체육관이며 각 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인 경우에 개방하고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우선 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은 축구경기만 가능하며,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잔디관리를 위해 일일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K-리그 경기와 선수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날을 선정해 주경기장 4회(10월 4·18일, 11월 8·14일), 보조경기장 5회(10월 7·15, 11월 2·11·16일)에 걸쳐 각각 일반 축구동호회원들에게 개방한다.

염주체육관과 빛고을체육관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대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같은 날짜에 여러 단체가 중복해 대관 신청할 경우 시 조례에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시설 개방과 대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시체육회 홈페이지(www.gwangju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관신청은 각 경기장 담당자(염주·빛고을체육관 062-604-1814, 월드컵경기장 062-604-2611)에게 대관일로부터 15일 전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체육시설의 개방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체육 동호회원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기를 바란다"면서 "내년에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와 대회 개최 등 불가피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시민에게 개방해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월드컵경기장 축구장과 보조경기장은 천연잔디 구장의 특성상 잔디 보호를 위해 K-리그와 A급 매치 등 경기와 프로선수들의 훈련장으로만 주로 활용돼 일반인들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